

아르헨티나, 2010년 3.5%대 경제성장 전망

- 아르헨티나 주요 경제전문기관*은 2010년 아르헨티나 경제가 2009년의 경기침체(성장률 전망치 0.6%)에서 벗어나 3.5%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

* 주요 경제전문기관 : Economía & Regiones, Centro de Analisis Social y Economico, Analytica, Estudio Bein&Asociados

- 대두 등 농산물의 수확량 및 국제가격, 최대 경제 파트너인 브라질의 경제상황 등 대외 경제여건은 나아지고 있으나,
- 인플레이션 및 정부의 지나친 개입정책, 농촌 파업 등을 포함한 사회적 분쟁 지속 및 확대 여부가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

<표 1> 아르헨티나 2010년 경제성장관련 전망지표(%)

기관명	Centro de Analisis Social y Economico	Analytica	Economia& Regiones	Bein& Asociados
경제성장률	4	3~3.5	3.5~4	4.8
인플레이션	15~16	17~18	18	17
환율(1달러당)	3.98	4.20	4.17	4.15

자료: EL CRONISTA

- 정부 및 민간기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대비 2010년 주요 경제지표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
- 정부는 재정정책 및 환율안정,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되며, 미국 등 세계경제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경우 아르헨티나 경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

<표 2> 아르헨티나 거시경제지표 예상

구분	2006	2007	2008	2009e	2010p
경제성장률(%)	8.5	8.7	7.1	0.6	1.2
달러대비 환율(페소)	3.06	3.15	3.14	3.73	4.00
인플레이션(%)	9.8	8.5	7.2	7.5	8.0
실업률(%)	8.7	7.5	7.3	8.8	9.0
투자증가율(%)	18.2	13.6	9.1	-10.7	-
수출(백만 달러)	46,569	55,933	70,558	56,918	63,883
수입(백만 달러)	34,159	44,780	57,413	38,590	48,763

자료: 아르헨티나 중앙은행, EIU (2009, 2010년 지표는 EIU 전망치)

- 2009년중 국제 경기침체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취해진 수입제한조치가 더욱 강화되는 등 자국산업 보호주의 정책이 계속 유지될 전망
 - 최근 특별관세지역(Tierra del Fuego)에서 생산되지 않는 전자제품에 대한 세금인상(34%) 법안이 통과돼 전자제품의 가격인상과 수입 감소 전망
- 2010년 현재 아르헨티나 총 외채는 1,400억 달러 수준으로 GDP 대비 약 48%를 차지해 외채문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국가 경제회복에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 - 2010년 단기 채무 상환액이 132억 달러이며, 이 중 52억 달러 정도의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돼 파리클럽과 IMF와의 관계 개선이 관건
- 아르헨티나 경제전문가들이 뽑은 2010년 주요 경제현안은 국내 인플레이션 안정 및 고용창출
 - '09년 경기 둔화 시기에도 인플레이션은 지속 상승하였으며, 농산물 가격 인상 및 서비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2010년 물가상승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
 - 아울러, 2009년중 약 34만여 개의 일자리가 없어져 실업으로 인한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용창출문제가 주요 정책현안이 될 전망

<사용파울루 사무소 제공>